

# 익산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탄력

### 1단계사업 연내 토지보상 착수... 예산절감·녹지 확보·삶의 질 향상 기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에 대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특례제도를 통해 7개 공원에 대하여 도심권 공원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라공원은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봤을 익산시는 도시 공원 확충과 예산 절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 7곳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있다.

익산시는 이들 공원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각 단계별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1단계 사업지구인 마동과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는 지난 5월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올 연말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로 진행되는 배산과 복일, 팔봉2지구는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후 최근까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으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라공원은 현재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승인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과 사업 시행 절차에 착수한다.

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신흥, 함열, 춘포, 무학공원도 보상절차가 본격화됐다. 신흥공원은 약 30만㎡를 매입하기 위해 보상협의를 마치고 감정평가에 들어갔으며 읍·면지역 공원의 함열, 춘포, 무학공원도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나머지 미집행공원 일부를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공원시설변경 및 보존지 지선)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과 녹지조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공원을 보존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제5회 다둥이가족 행복 축제 성황리

### 익산시, 2000여명 참여 다양한 체험 및 부대행사 진행

익산시는 지난 21일 다자녀 가족들을 위한 제5회 다둥이가족 행복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다둥이가족 행복 축제는 다자녀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려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둘째 이상 다둥이가정의 아이와 부모 등 시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산아트, 버블쇼 등이 식전공연으로 펼쳐졌다.

1부 행사로는 모범가정과 출산장려 유공 개인 및 단체 11팀에 대한 시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퍼포먼스,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가족 명랑운동회가 진행됐다.

2부 행사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인 난타, 팝페라, 발레댄스, 서커스의 축하공연과 우리 가족의 특기를 공개하는 가족 장기

자랑으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더불어 진행한 체험 및 부대행사와 무료 먹거리부스 운영으로 축제를 찾은 다둥이가족들에게 행복한 가을 추억을 선사했다.

체험행사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삼각주머니 커피콩 방황제 만들기, 리본핀 만들기, 미니레버린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탄생축하 만들기, VR 가상현실 체험 등이, 부대행사로는 금연캠페인, 가족포토존 및 비눗방울 놀이 등이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에 많은 다둥이가족들이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일깨우는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며 아이가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매칭데이 개최

### 오늘 군산시 청년들서 미니 취업박람회 형식 진행

군산 산업단지 내 44개 중소기업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에게 일거리를 주려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는 정부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두 번째 매칭데일로 23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청년들(청년·창업센터)에서 미니 취업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결과 산업단지 내 중

소기업들의 청년인력 수급을 위한 일자리 요청이 많았으며, 총 44개 기업 및 단체에서 75개의 청년일자리 제공을 예정이다.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제공될 사업은 민간취업연계형 4개 사업으로,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 청년문화기획가 양성사업,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양성사업, 창업매니저 양성사업이며 매칭 후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쌓게 된다.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청년 외에도 일자리사업에 관심 있는 만 19

세 ~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를 통해 선호하는 기업부스를 방문하여 면접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진로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등 각종 체험부스도 운영하여 방문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이 일거리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창출과(454-43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익산시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위험에 처한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로 예측되는 1,710가구와 60㎡이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관리비 또는 공동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29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읍면동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명예위원 등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격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고위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고위험 위기가구 발견 시 희망복지지원단(859-5389)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0월 8일부터 '치매가족교실 헤이림'을 운영한다.

## 군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관 표창

군산시가 다양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공급 기반을 구축해 완성도 높은 푸드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돼, 오는 25~27일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한 사업의

실적과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농촌진흥청 지원계정으로 추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농부의 식품공장'이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6개 부처 균형발전사업 68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에 이끌고, 지역 내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김인준 군산시장은 "내년도에 농업인 공동이용 제조시설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확대해 농업인 가공 거점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공급 기반을 구축해 완성도 높은 푸드플랜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농가에서 4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3개 로컬푸드직매장, 2개 특산물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14:00~16:00) 총 8회기에 걸쳐 '치매가족교실 헤이림'을 운영 할 예정이다.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이웃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후 올해 두 번째 '치매가족교실 헤이림'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대상은 치매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든 가족 및 이웃으로 신청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460-3211~2,32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